

# 결손가정아동의 자아탄력성과 부적응행동 변화에 미치는 문학치료 중재 효과

박완주<sup>1</sup> · 김미예<sup>2</sup>

경북대학교 간호대학 조교수<sup>1</sup>, 교수<sup>2</sup>

## Effects of Literary Therapy Intervention on Ego Resilience and Maladaptive Behavior in Children of Broken Homes

Park, Wan Ju<sup>1</sup> · Kim, Mi Ye<sup>2</sup>

<sup>1</sup>Assistant Professor, <sup>2</sup>Professor, College of Nursing,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Purpose:** This study was done to examine the effects of a literary therapy intervention on ego-resilience and maladaptive behavior among children of broken homes. **Methods:** The intervention consisted of 16 sessions designed to achieve a positive self-concept and was constructed as an interaction between participant and certain literature including poetry, narratives, dramas, art therapy, and willingness to share it with others. The study was carried out from May 2 to July 25, 2006. The participants were 36 children resided in a vulnerable region in G city. The collected data for Ego-resilience, Korean-Children Behavior Checklist (K-CBCL), Korean-Youth Self-Report (K-YSR) were respectively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repeated measures ANOVA with Post Hoc, and ANCOVA with the SPSS/WIN version 12.0 program. **Results:** After the intervention,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experimental and the control group for Ego-resilience, K-CBCL, and K-YSR.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according to time process in ego-resilience and K-YSR. **Conclusion:** The results indicate that literary therapy is an effective nursing intervention for enhancing ego-resilience and reducing maladaptive behavior in children of broken homes.

**Key Words:** Broken home, Ego-resilience, Maladaptive behaviors, Literary therapy

## 서 론

### 1. 연구의 필요성

현대사회의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는 사고나 재해로 인한 사망률 증가,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 개인주의 확대와 공동체 의식의 약화, 가치관과 가족구조의 변화를 일으킴으로써 이혼, 별거, 가출, 미혼모 등으로 인한 결손가정이 증

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른 결손가정의 아동들은 부수적으로 따르는 경제적 어려움과 편부모의 역할과중 등으로 가족이나 사회적 지지로부터 방임되어 오고 있다. 우리나라의 한 부모 가정은 이혼, 사별, 미혼모 등의 이유로 편부모가정이나 조손가정인 결손가정이 농어촌에서 2.7%, 도시에서 3.6%로 총 6.3%로 보고되었고(Korean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 2005), 2009년 한 해 동안 이혼은 12만 4천 건으로 2008년의 11만 6천 500건에 비해 7천 5백건

**주요어:** 결손가정, 자아탄력성, 부적응행동, 문학치료

**Address reprint requests to:** Park, Wan Ju, College of Nursing,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101 Dongin 2-ga, Jung-gu, Daegu 700-422, Korea. Tel: 82-53-420-4977, Fax: 82-53-421-2758, E-mail: wanJupark@knu.ac.kr

- 본 논문은 박사학위논문 중 일부를 발췌한 것임.  
- This Study is a Revision of Doctoral Dissertation.

투고일 2011년 3월 22일 / 수정일 1차: 2011년 4월 11일, 2차: 2011년 6월 1일 / 게재확정일 2011년 6월 5일

(6.4%)이 증가하였으며 조이혼율(인구 천 명 당 이혼건수)은 2.5건으로 전년도 0.1건 증가되었다(Korean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 2010). 이와 같은 형태적 결손가정 이외에도 중독, 폭력, 부도덕 등 심각한 수준의 가족갈등과 가족해체에 노출되어 있는 기능적 결손가정아동의 수도 계속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다.

아동·청소년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가정환경 요인인 가정불화나 결손가정의 아동들은 정상가정아동에 비해 행동 문제와 정서문제를 보일 가능성이 2~5배 높다(Richman, Steavenson, & Graham, 1982). 대체로 결손가정의 아동은 자존심이 낮고 부정적 자기개념을 가지며 대인관계가 부족하여 사회성 및 자율성이 낮고 육체적 또는 지적 발달 지연, 심리적 갈등, 우울, 불안 등을 초래한다(Kim & Kim, 2002). 뿐만 아니라 이러한 정서문제는 자기정체감의 상실과 내적 도덕적인 판단기준이 분명하지 못하여 심리적인 문제행동을 보이며, 자기통제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비행까지 야기될 수 있다(Lee, 2004). 이들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자아의 성장을 도와주고 부적응이나 문제행동을 예방하여 일상생활에서 부딪치는 내면의 갈등을 스스로 이해하고 보다 나은 대안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도록 도와야 한다는 Kim과 Kim (2002)의 주장과 같이 그들을 위한 구체적이고 임상적용 가능한 정신간호중재 프로그램이 시급히 필요한 실정이다.

하지만 이러한 부정적 가정환경에도 불구하고 성공적 적응을 하는 경우도 있다. 이 긍정적 적응에 영향을 주는 의미 있는 변인은 자아탄력성(Yoo, Hong, & Choi, 2004)과 같은 자아개념으로 아동의 행동이나 성취, 동기, 적응 등의 발달에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 왔다. 자아개념의 한 부분인 자아탄력성은 인지적, 정서적, 그리고 행동적 요소를 모두 포함하는 적응에 관련된 개념(Yoo et al., 2004)으로서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중요한 변인(Kook, 2003)으로 보고되어 자아탄력성이 높은 그룹이 적응수준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자아탄력성은 위기 속에서도 긍정적이고 성공적인 성장을 하는 인간의 적응능력이며 평범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보편적인 적응기전으로 시간에 걸쳐 발달되는 하나의 발달과정(Garmezy, 1993)이므로 학습과 경험을 제공하여 탄력적이 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예방적 혹은 치료적 중재전략의 개발을 가능하게 한다(Park, 2009). 그러나 국내 간호학영역에서 자아탄력성 획득과 강화에 관련된 임상적 연구는 사회학, 심리학, 교육학 저널을 포함한 총 160여 편의 자

아탄력성 논문 중에서 겨우 20여 편으로 간호학적 임상연구는 매우 미흡하며, 용어조차도 복원력, 극복력, 적응유연성, 자아탄력성, 심리적 적응 등 합일되지 않고 있어, 그와 관련된 적절한 치료모형을 임상영역에서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총체적이면서도 구조적인 전략이 가능한 문학치료는 문학읽기와 함께 다양한 활동치료의 병행으로 상승효과를 일으켜 결손가정아동의 정서, 인지, 그리고 행동의 변화를 일으키게 하며 현재의 갈등에서 자기의 문제를 통찰하고 주의를 외부로 향하게 하므로 탄력적인 적응과 회복 증진을 도울 수 있는 효율적인 중재전략이다(Byun, 2006). Kook (2003)은 자아존중감 즉 자아개념이 낮아 부적응행동을 보이는 아동일수록 신체적인 활동이 주가 되는 중재보다는 문학치료중재가 아동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효과적이라 하였다. 문학치료는 문학 자료를 매개로 대상자의 일정한 문제를 겨냥하여 계획된 목적의식을 갖고 전개되는(Cornett & Cornett, 1980) 통합적 치료방법으로서 신체, 마음과 정신의 건강을 돌보기 위해 문학을 이용하여 자신의 문제를 인지하고 감정을 표현하게 하여(Kramer & Smith, 1998) 정서적, 인지적 영역에서의 재편성 과정을 통하여 새로운 에너지를 갖고, 환경에 대처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울 수 있게 하여 행동의 변화를 일으키게 한다(Byun, 2006). 선행연구에서 임상간호영역에서의 활용은 문학치료의 일부인 독서치료를 Kim (1984)이 정신과 입원 환자의 증상별 행동과 질병예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이후 극히 소수이며, 통합적인 문학치료중재는 간호학에서 전무한 편이다. 문학치료의 부분인 독서치료(bibliotherapy)는 문학, 인생경험담, 치유경험 등을 통한 책읽기이며, 시치료(poetry therapy)는 텍스트 만들기의 글쓰기 치료이다. 그러나 문학치료(literary therapy)는 문학읽기, 글쓰기뿐만 아니라 치료과정에 미술, 음악, 무용/동작, 역할극 시연 등 다양한 예술형태의 치료활동요법을 통합적으로 도입하고 결합하여 적용하는 심리치료방법이다(Byun, 2006). 즉, 기존의 전통 심리학적 독서치료에서 철저히 배제되어 왔던 몸, 동작, 소리, 춤, 비언어적 영역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문학치료에 함께 적극 수용되면서 실제경험을 통해 적극적으로 개방적이고 수용적인 분위기에서 다양한 인지적·행동적 전략의 활동을 포함하는 새로운 문학치료 중재의 임상적 실증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가족의 위기상황에서 자신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학교생활에 적응하여 정상적인 성인으로 성장해 갈 수 있

도록 결손가정아동을 위한 자아증진과 부적응 행동의 감소를 위한 적용 가능한 구체적인 프로그램 개발이 절실한 시점에 본 연구자는 결손가정 아동의 정서, 인지, 행동적 재편성을 위한 문학치료를 적용하여 그들의 자아탄력성과 부적응행동에 미치는 효과를 규명함으로써 간호학에서 활용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문학치료중재가 결손가정아동의 자아탄력성과 부적응행동에 미치는 효과를 알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문학치료 중재가 결손가정아동의 자아탄력성 증진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한다.
- 문학치료 중재가 결손가정아동의 부적응행동 변화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한다.
- 문학치료 중재가 결손가정아동의 시간경과에 따른 자아탄력성과 부적응행동 변화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한다.

## 3. 연구의 개념적 기틀

본 연구의 개념적 기틀은 경험적-관계지향적 접근인 게슈탈트(Gestalt) 이론의 여기 그리고 지금(here and now)의 현재중심에서 문제에 초점을 두고 결손가정아동의 사고와 감정을 탐색한다. 게슈탈트 심리치료는 인간을 총체적이고 선택의 자유에서 잠재력을 각성할 수 있는 존재로 보는 관점으로 내담자가 스스로 인식을 획득(인식의 변화)하여 더 나은 선택을 하게 하여 스스로의 긍정적인 힘을 발견하고, 분리된 개인을 조화롭게 통합시키는데 목적을 두는 원리이다(Byun, 2006; Byun, Chae, & Kim, 2008; Kim, Chae, & Byun, 2009). 활동지향적 접근인 인지행동치료는 부적응적 사고내용, 신념체계, 인지적 오류 등의 역기능적 사고를 합리적 사고로 대체하여 인지적 재구성을 시켜 자신의 문제를 객관화시키고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문제로 받아들이며 현실적 소망과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한다. 문학치료 중재 과정에 자아탄력성 증진과 부적응행동을 수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술에 초점을 맞추고, 모델(modeling), 행동시연(behavior rehearsal), 놀이(play), 역할극(role play) 등과 같은 병행활동을 활용한다(Kim et al., 2009).

결국 참여아동은 감정, 인지, 그리고 행동을 통합하여 새

로운 방향이 설정되고 다양한 해결책을 모색하게 하여 나름대로의 최선의 대안을 선택하도록 한다. 부적응행동을 한 단계씩 변화시켜나갈 수 있도록 행동지향적인 방법을 제공하고 선택된 행동변화 기술을 실행과 연습, 과제를 통해 반복하게 한다. 최선의 선택을 실행해봄으로써 평가하고 다시 수정하는 학습과 병행활동으로 부적응행동이 적응행동으로 변화되도록 한다. 이와 같은 자기적용(self-application)은 문학치료를 통해 얻게 된 통찰력을 통합하고 이 통찰력을 바탕으로 인지적 재편성이 일어나며 부적응행동을 조절하여 되어 적응해 나가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결손가정 아동들에게 문학을 매개로 감성적 변화, 인지적 변화를 일으키게 하고 더 나아가 행동적 변화를 추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프로그램을 구조화시켜 자신의 경험을 공유, 자신의 문제를 확인하고, 자신의 가치와 능력을 개발하여 자아탄력성이 증진되고, 세 방향설정과 연습과 평가의 반복으로 부적응행동에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는 다음과 같은 연구 모형을 설정하였다. 본 연구의 개념적 틀의 도식은 다음과 같다(Figure 1).

## 연구 방법

###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문학치료중재가 결손가정아동의 자아탄력성과 부적응행동에 미치는 효과를 알기 위한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실험설계(nonequivalent control group pretest-posttest design)의 유사실험연구(quasi-experimental design)이다(Figure 2).

### 2. 연구대상 및 기간

G시의 취약지구 영구임대 아파트에 거주하는 빈곤하면서 결손가정인 아동들로 낙인효과(stigma)와 호손효과(Hawthorne effect)를 피하기 위해 형태적 결손가정아동과 기능적 결손가정아동을 함께 프로그램에 포함시켰으며 ‘자신감 창의력 개발 프로그램’이라는 긍정적 제목으로 단일맹검(single blind)방법으로 실시되었다. 그리고 실험자효과를 배제하기 위해 지역정신보건센터와 아동센터의 직원 3인이 함께 보조자(co-worker)로 참여하면서 객관적 관찰과 평가를 도왔다. 결손가정아동으로 의사소통의 장애가 없으며, 인지와 판단에 장애가 없는 아동과 부모 모두에게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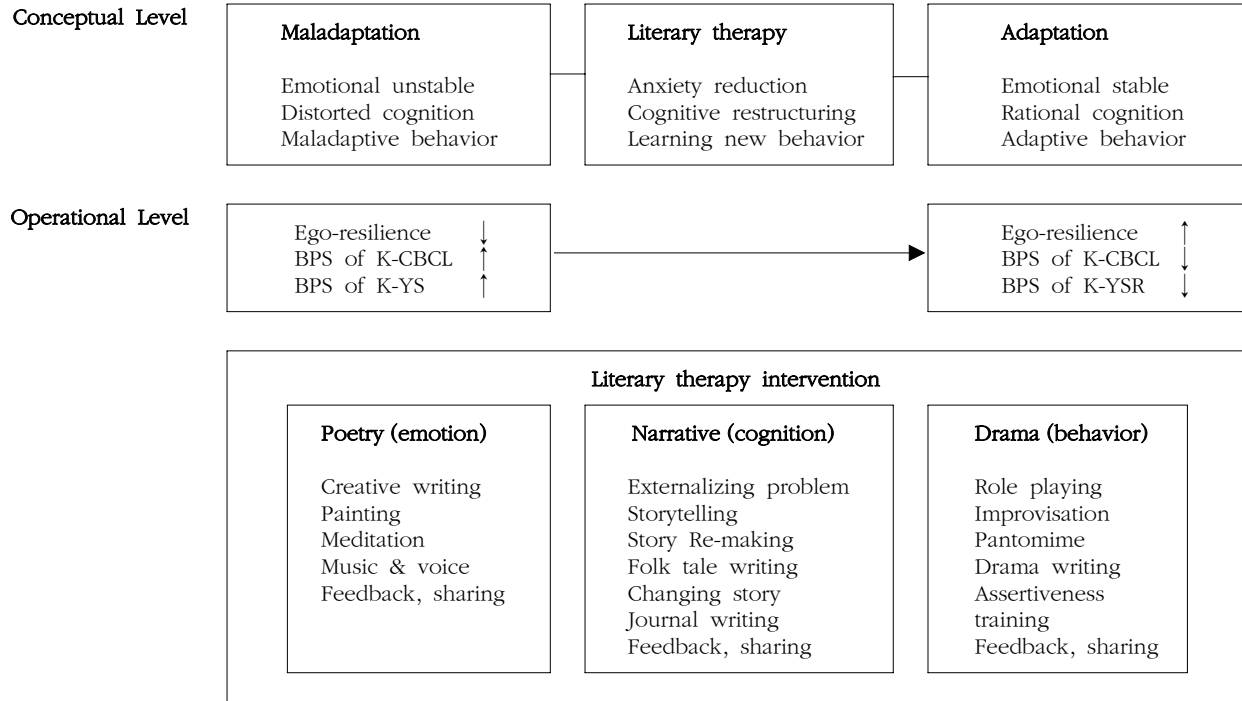


Figure 1. Conceptual framework of this study.

Group	Pretest	Treatment	Midtest	Treatment	Posttest
Experimental group	Ye <sub>1</sub>	X <sub>1</sub>	Ye <sub>2</sub>	X <sub>2</sub>	Ye <sub>3</sub>
Control group	Yc <sub>1</sub>				Yc <sub>2</sub>

Ye<sub>1</sub>, Yc<sub>1</sub>=Pretest (ego-resilience, BPS of K-CBCL, BPS of K-YSR); Ye<sub>2</sub>=Midtest (Ego-resilience, BPS of K-YSR); Ye<sub>3</sub>, Yc<sub>2</sub>=Posttest (ego-resilience, BPS of K-CBCL, BPS of K-YSR); X<sub>1</sub>, X<sub>2</sub>=Intervention (literary therapy).

Figure 2. Research design.

프로그램에 참여의 서면동의를 받았다. 연구대상자의 윤리적 침해를 막기 위해 설문응답이 연구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을 약속하였으며, 자의적으로 연구참여를 수락한 자들에게 조사대상자의 익명과 비밀이 보장됨을 설명하고, 철회할 수 있음을 알려주어 중도 포기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자아탄력성과 같은 정의적 발달이 만 10세 이후부터 형성된다는 근거(Block & Kremen, 1996)와 Piaget의 ‘인지발달 단계론’에서 추상적, 가설적, 논리가 가능한 형식적 조작기에 접어든 11세에서 13세 아동들로, 청소년 비행 등의 문제로 전환되기 전 조기치료접근과 예방적 치료효과를 얻기 위해 초등학교 4, 5, 6학년 아동이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집단 문학치료에서의 상호작용 역동에 최적의 인원 7~8명(Yalom, 1985), 적절한 집단치료의 인원은 8~20명(Byun, 2006)의 원칙으로 실험군, 대조군을 각각 20명으로부터 시작하였다. G시의 지역아동센터에 등록된 총 학령기아동

108명에서 저학년 아동 46명, 결손가정이 아닌 아동 22명을 제외하고 남은 총 40명 중 처치의 확산이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동센터에서의 방과 후 활동에 참여하는 아동 21명과 참여하지 않는 아동 19명으로 할당하였다. 그러나 이사를 가거나 결석이나 사후 검사지를 완성하지 못한 대상을 제외하고 최종 연구대상으로 참여한 인원은 형태적 결손가정아동 12명, 기능적 결손가정아동 5명으로 실험군 총 17명이었다. 대조군은 총 19명으로 그 중 형태적 결손가정아동 14명, 기능적 결손가정아동 5명으로 전체대상자는 36명이었다(Figure 3).

### 3. 연구도구

#### 1) 문학치료 중재

자아탄력성의 개념속성과 대상자의 부적응문제행동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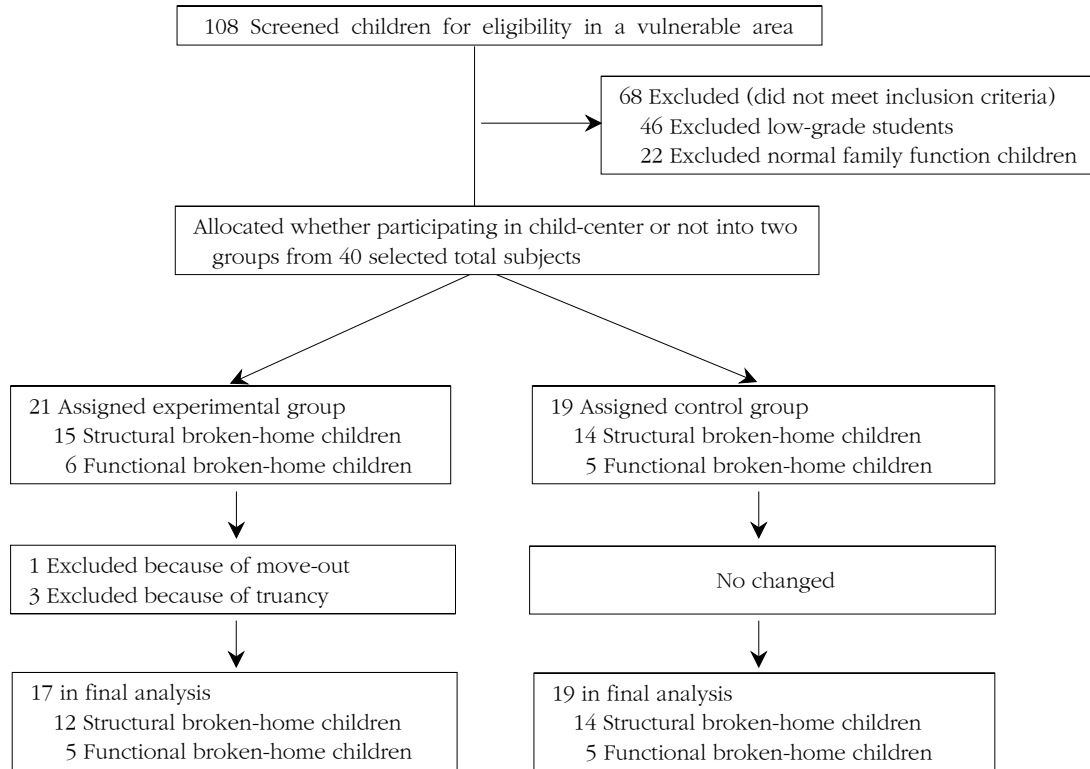


Figure 3. Flow diagram of participants through the study.

관련되는 문학자료 및 매체자료는 대상자의 연령, 독해력 수준, 집단이 지닌 문제의 성격, 당면과제, 문제에 대한 해결책과 흥미, 그리고 주제와 문체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였으며 매회기마다 도입단계, 작업단계, 통합단계, 그리고 새 방향설정단계의 각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Figure 4). 연구에 사용된 문학텍스트는 ‘반쪽이’, ‘아홉 살 내 인생’, ‘지각 대장 존’, ‘짜장·짬뽕·탕수육’, ‘너도 하늘말나리야’, ‘우동한 그릇’,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 ‘팽이부리말 아이’, ‘아빠는 지금 하인리히 거리에 산다’, ‘김미선 선생님’,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 ‘미운 돌맹이’, ‘나답게 나고은’, ‘머리와 꼬리’였으며, ‘창작 역할극’, ‘긍정적 경험 강화와 자기변화유지 전략’의 마무리로 구성되었다. 취약지구 아동센터 내의 프로그램실에서 2006년 5월 2일에서 2006년 7월 25일까지 총 16회기의 주 1회 매 회기당 90~120분씩 진행되었다.

#### (1) 문학치료 중재의 도입단계(initial phase)

저항과 방어를 최대한으로 줄이고 비지시적 상담기법을 활용하여 최대한 허용적인 분위기에서 지금-여기에서의 참여자 자신의 감정을 이야기해보도록 시도한다. 이 단계는

과거를 회상할 수 있는 어린 시절의 편지, 물건, 장난감 등을 활용하기도 하고, 육체적 기억을 위한 터치, 문학, 동작, 음악, 그림, 글쓰기 등으로 자신을 표현하는 방법들을 활용하여 워밍업(warm-up)시키고, 라포(rapport)를 형성한 후 문학자료를 읽어주거나 나누어 읽는다.

#### (2) 문학치료 중재의 작업단계(action phase)

작품에 몰입해 가는 단계로 자신의 문제를 다루어보는 작업단계이다. 문학자료를 통해서 자기중심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자아인식의 계기를 마련하게 한다. 문학작품에서 함축하고 있는 상징과 은유 속에 담겨 있는 의미에 대한 효과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적절한 발문과 활동으로 문학 내용에 대해 무엇이 가장 인상 깊었는지, 내용을 잘 파악하고 있는지, 또는 개인적인 생각과 느낌을 나누어보면서 자신의 상처와 경험을 깊이 들여다보고 지금까지 표현하지 못하고 억압되어 있던 숨겨진 의식이나 감정을 드러내게 한다. 등장인물과 동일화하게 되고 작품내용의 주인공의 성격, 행동, 태도를 이상으로 자신의 내면에 섭취하여 같은 감정을 증대시킴으로 감정적 정화(catharsis)를 경험하게 하여 자신의 문제를 객관화 또는 일반화시켜 과거의 먼 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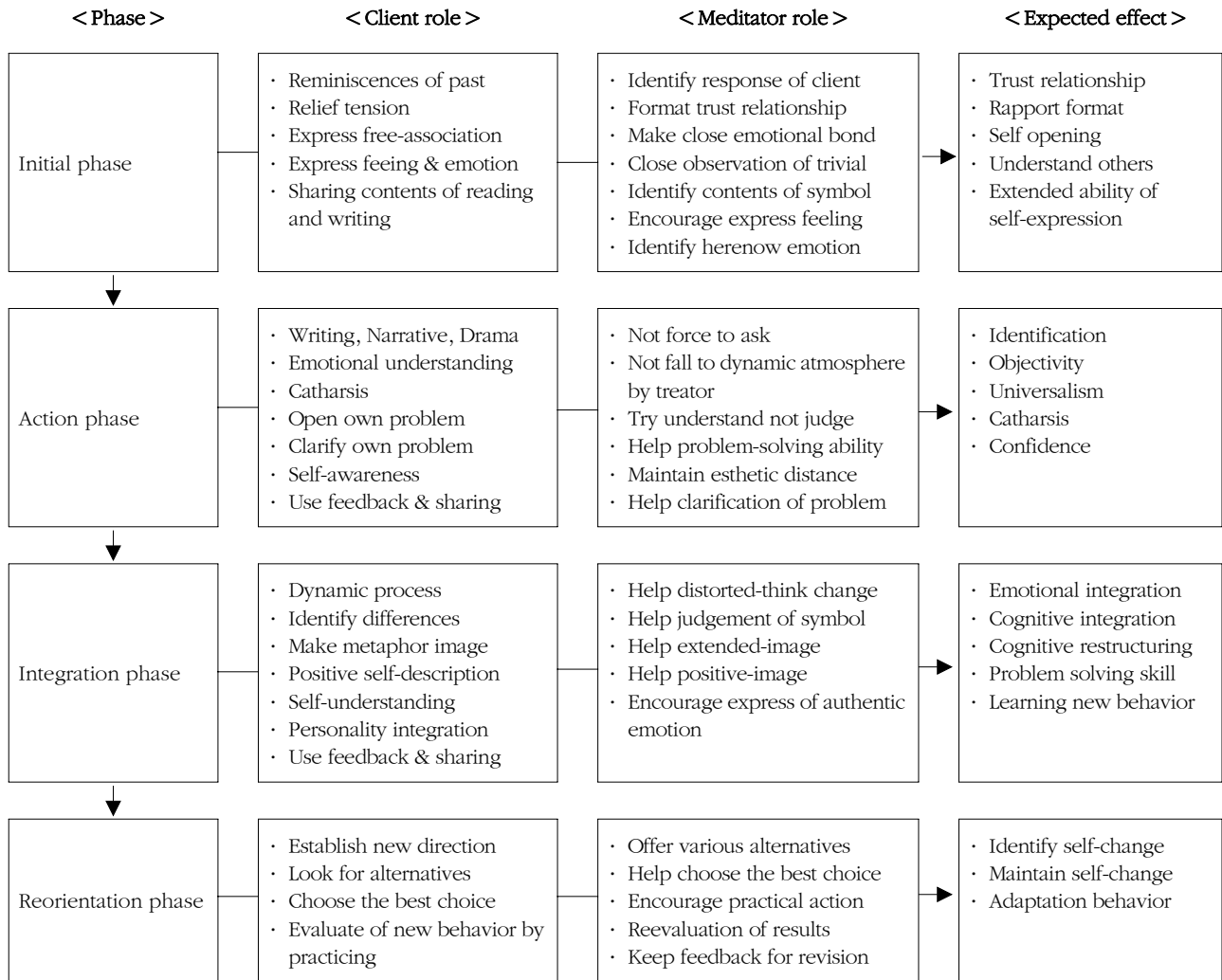


Figure 4. Intervention process of literary therapy.

정적 기억이 교체되어 질 수 있도록 음악, 그림, 이야기치료, 자기주장훈련, 역할극, 모방과 강화, 분노조절 스트레스 이완, 의사소통훈련, 글쓰기 등의 다양한 예술 및 표현매체를 이용하여 문학내용에 맞게 작업한다.

### (3) 문학치료 중재의 통합단계(integration phase)

작업단계의 역동적 과정을 자신의 것으로 체험하게 하는 단계이다. 집단중재에서의 피드백을 받는 과정에서 자신의 과거감정을 이해하고 자신을 용서하는 인격적 통합을 얻게 되는 과정이다. 긍정적인 자기묘사와 긍정적인 면 찾기, 긍정적인 생각인식, 죄의식 해소와 적개심 완화가 일어나고, 과거의 최초의 인식과 현재의 인식이 어떻게 다른지를 구별해 보게 하여 스스로 객관적 평가를 할 수 있도록 돕는다. 문학치료 중재 후에 인식이 어떤 점에서 구별되었는지, 왜 그렇

게 바뀌었는지를 말하거나 기술해 보게 한다. 문학의 내용을 통해 오인이 재인식으로 바뀌고 새로운 안목이 생기는 과정이다. 사건과 감정, 감정과 인지의 관계를 알아보고 왜곡된 인지와 자동적 사고를 식별하여 인지적 재편성을 하도록 피드백(feedback)과 셰어링(sharing)을 통한 활동요법으로 통합을 돕는다.

### (4) 문학치료 중재의 새 방향 설정단계(reorientation phase)

과과적이고 부정적인 감정이 분출되고, 올바른 자기인식(self-awareness)과 긍정적인 감정을 얻게 된 대상자는 이제 자신이 어떤 목표로 행동할 것인지에 대해 새로운 방향을 설정하게 되도록 한다.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보려는 의식을 갖도록 지지하며 프로그램을 통해 얻은 자신감과 창의력으로 창작 연극을 무대에 올려보기도 하여 그

속에서 변화된 새로운 자신을 발견하게 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나는 긍정적인이다, 나는 잘하고 있다, 나는 용서한다, 나는 세상을 밝게 한다’의 긍정적인 방향으로 재설정되는 단계이다. 마무리 단계에서 프로그램 전반에 대한 평가와 긍정적인 경험을 강화시키고 자기변화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전략을 나누고 지지한다(Figure 4).

## 2) 자아탄력성 척도(Ego-Resilience Scale)

Block과 Kremen (1996)의 측정도구 14문항을 가지고 Park (1996)이 전문가 3인과 함께 예비문항 60문항을 만들고, 다시 변별도, 신뢰도가 떨어지는 문항을 수정 또는 삭제하고 구성된 척도로 하위영역은 대인관계, 활력성, 감정 통제, 호기심, 낙관성 각각 8문항씩 40개 문항으로 구성된 것이다. 원도구의 ‘대부분 아니다’ 1점에서 ‘대부분 그렇다’ 4점까지의 Likert 4점 척도의 자가보고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탄력적 성향이 높음을 의미한다. Park (1996)의 도구사용 승인을 받았으며, 이 도구를 개발할 당시 신뢰도 Cronbach's  $\alpha = .80$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 .89$ 였다.

## 3) 아동·청소년 행동평가척도(Behavior Problem Scale: BPS of K-CBCL)

자녀의 다양한 적응 및 부적응 행동, 정서적 문제에 대해 평가하는 부모보고형 척도로 본 연구에서는 아동이 보고한 행동평가의 신뢰성을 보기 위해 함께 사용되었으며, 중앙적성연구소에서의 도구구매와 사용허락을 받아 사용되었다. Achenbach (1991)가 해당연령을 4~18세까지의 위축, 신체증상, 우울과 불안, 사회적 미성숙, 사고 문제, 주의집중, 비행, 공격성 등의 8개의 척도와 하위영역을 묶어서 다시 내재화문제, 외현화문제, 성문제, 총 문제행동을 포함하여 총 12개의 척도를 Oh, Ha, Lee와 Hong (1997)이 만 4세에서 17세까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2차 표준화한 한국판 아동청소년행동평가척도(Korean-Children Behavior Checklist, K-CBCL)는 위축, 신체증상, 우울과 불안, 사회적 미성숙, 사고의 문제, 주의집중 문제, 비행, 공격성, 내재화문제, 외현화문제, 성문제, 총 문제행동, 우리나라 특유의 정서불안정 문제를 덧붙여 13개영역 척도로 구성되었다. 그러나 아동과 저학년의 4~11세만 적용하는 성문제 척도와 6~11세만 적용하는 우리나라 특유의 정서불안정 문제 척도문항은 나이 차이로 본 연구에서 생략되었다. Achenbach (1991)가 원도구를 만들 당시 위축, 신체증상,

우울과 불안 척도를 합하여 내재화문제로, 비행, 공격성 척도를 합하여 외현화문제로, 전체 문제행동 문항은 합하여 총 문제행동으로 평가되었으며 총 117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에 대한 반응은 ‘전혀 그렇지 않다’ 0점에서 ‘자주 그렇다’를 2점까지 Likert 3점 척도로 점수 값이 클수록 측정하고자 하는 부적응행동 척도의 성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도구개발 시 내적신뢰도는 .62에서 .86이었으며 도구의 안정성인 검사-재검사에서 신뢰도  $r = .68$ , 변별타당도는 집단차이검증 결과 모든 하위영역에서  $p < .001$  수준이었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내재화문제 .76, 외현화문제 .86으로 전체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 .91$ 이었다.

## 4) 청소년 자기행동 평가척도(Behavior Problem Scale: BPS of K-YSR)

11~18세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신의 적응 및 정서, 행동적 문제에 대해 평가하는 것으로 부모보고의 행동평가의 신뢰성을 함께 보기 위해 사용되었다. Achenbach (1991)가 개발한 만 11세에서 18세까지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의 자기행동평가(Youth Self Report)는 위축, 신체증상, 우울과 불안, 사회적 미성숙, 사고 문제, 주의집중, 비행, 공격성 등의 8개의 척도와 하위영역을 묶어서 다시 내재화문제, 외현화문제, 총 문제행동, 남자아동에게만 적용되는 자해/정체감문제를 포함하여 총 12개의 척도를 Ha, Lee, Oh와 Hong (1998)이 표준화한 한국형 청소년자기보고식 행동평가척도(Korean-Youth Self Report, K-YSR)의 문제행동중후군 12개의 척도를 번안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내재화문제에 포함된 위축, 신체증상, 우울/불안과 외현화문제에 포함된 비행, 공격성, 사회적미성숙 문제영역으로 총 8개 영역의 68문항인 Moon (2000)의 도구를 사용하였다. ‘전혀 해당되지 않는다’ 0점에서 ‘자주 그런 일이 있거나 많이 그렇다’ 2점까지 Likert 3점 척도로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적응 행동성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남자평균  $r = .60$ , 여자평균  $r = .32$ 로 하위영역별 모두 유의한 수준이었고 수렴타당도 검사에서 남녀모두에서 상관계수가  $p < .001$  수준에서 유의했다. 도구개발 당시 내적 신뢰도 Cronbach's  $\alpha$ 는 하위영역별 .63에서 .85까지였으며, Moon (2000)의 연구에서 내재화문제 신뢰도 .91, 외현화문제 신뢰도는 .90이었다. 본 연구에서 하위영역별 내재화문제 .87, 외현화문제 .89로 전체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93$ 이었다.

#### 4. 연구진행 및 자료수집

##### 1) 1단계: 연구자 준비

연구에 앞서 연구자는 자아탄력성의 개념을 선택하여 개념분석을 하였다. K 대학 문학치료대학원에서의 문학치료의 이론적 배경과 기틀을 익혔으며, 임상실습으로 통합적 문학치료의 진행과정, 문학과 정신분석, 자유연상과 적극적 상상 등의 이론과 창의적 시 쓰기, 자기체험의 시 치료 등의 글쓰기치료 workshop, 팬터마임, 동작, 텍스트의 드라마화, 자기체험, 즉흥극 등의 드라마치료 workshop, 그리고 체험이야기, 경험을 소재로 한 글쓰기, 동화꾸미기, 동화연기하기, 이야기 꾸미기 등의 이야기치료 workshop으로 전체 임상실습을 하였다. 그리고 문학치료학회, 세미나, 문학치료학과 교수와의 계속적 자문을 받으며 문학치료자의 역할과 기본을 연마하였다. 또한 정신보건센터에서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2년 동안 문학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정신보건간호사로서 지역사회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집단 프로그램들을 제공하면서, 아동청소년 관련 연구활동과 프로그램 개발에 참여하여 왔다.

##### 2) 2단계: 예비조사 및 사전 조사

본 연구를 위해 예비조사는 2006년 1월 G시의 취약지구 영구임대 아파트에 거주하는 아동을 위한 집단교육 프로그램을 미리 실시하여 프로그램의 적절성 여부, 소요시간, 내용의 적합성, 절차상의 문제점, 실험군의 크기, 측정시기, 효과 발생시기 등을 검토하였으며 2006년 4월 사전 조사에서 실험에 참여하는 결손가정아동들의 공통된 문제를 파악하고 관련 문학자료 도서선정에 도움을 얻었다. 지역아동센터와의 협조로 실험군과 대조군을 선정하였고, 실험군은 직접가정방문으로 부모나 대리인 그리고 아동에게 연구목적을 설명하고 16회기 문학치료중재의 계속적 참여에 대해서면동의서와 연구자의 사용승인을 얻은 자아탄력성 설문지와 한국적성연구소에서 구입한 부모보고식과 자가보고식의 두 종류의 행동평가 설문지로 개별배부의 사전 조사를 실시하였다.

##### 3) 3단계: 실험군의 실험처치 및 중간 조사

문학치료적 중재를 실시한 기간은 2006년 5월 2일부터 7월 25일까지 총 16회기를 주 1회씩 매 회기 당 90~120분씩 진행하였으며, 프로그램을 위한 장소는 취약지구의 아동센터 내 프로그램실에서 시행하였다. 중재 1회에서 8회까지

문학치료적 중재를 진행한 후 문학치료중재가 자아탄력성과 부적응행동의 행동변화동기와 효과적이고 적절한 중재기간을 알아보기 위해 중간 조사를 실시하였다. 중간 조사를 실시하여 실험군의 자아탄력성과 자가보고식 청소년문제행동평가 척도의 중간점수를 얻었다. 그 후 문학치료적 중재를 다시 9회에서 16회까지 시행하였다.

##### 4) 4단계: 실험군, 대조군의 사후 조사

실험군은 중재 프로그램이 끝나는 16회기에, 그리고 대조군은 사전 조사 후 시험효과가 배제될 시점인 3개월 후에 자아탄력성과 아동청소년행동평가, 그리고 청소년자기행동 평가를 하였다.

#### 5. 자료분석

자료분석은 SPSS/WIN 1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 백분율, 평균의 빈도분석을 산출하였다. 집단별 Komogorov-Smirnov 정규성 검정에서 유의수준 .05보다 크기 때문에 귀무가설 '모집단의 분포는 정규분포를 따른다'를 기각할 수 없으며 변수의 데이터가 같은 평균과 표준편차를 가지는 정규분포의 백분위수들과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Q-Q 도표에서 데이터의 점들이 직선에 가까워 정규분포의 가정을 확인하였다. 실험군과 대조군의 자아탄력성과 부모보고의 아동청소년행동평가, 청소년 자기행동 평가에 대한 가설검정은 독립표본 t-test를 실시하였으며, 사전과 사후 점수의 차이는 대응표본 t-test, 중재의 효과는 각 변수의 사전값을 공변량으로 하여 공변량분산분석(ANCOVA)를 실시하였다. 시간경과에 따른 중재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반복측정분산분석(repeated measures ANOVA)을 실시하였고 사후 검정은 다중비교의 Bonferroni test를 사용하였다.

## 연구결과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동질성 검증

전체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서 실험군의 성별은 여자 58.8%, 남자 41.2%였으며 대조군은 남자 57.9%, 여자 42.1%로 두 군이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학년별 분포를 보면 실험군은 4학년 41.2%, 6학년, 5학년이 29.4%이었으며,



대조군에서는 6학년이 42.1%, 4학년 36.8%, 5학년이 21.1%를 보여 두 군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가족유형에서 실험군은 편모가정 47.0%, 기능적 결손가정 29.4%, 조부모가정과 편부가정이 각 11.8%였으며, 대조군은 편모가정인 경우 36.8%, 기능적 결손가정이 26.3%, 조부모 가정 21.1%, 편부인 경우 15.8%로 두 군은 유의한 차이가 없이 동질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손가정의 이유로는 실험군이 이혼 35.3%, 사망 또는 기타 29.4%, 부모의 가출, 별거 17.6%였으며 대조군인 경우 이혼 36.8%, 사망 또는 기타 31.6%, 부모의 가출 21.1%, 별거가 각 10.5%로 나타났으며 두 군은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었다. 형제의 수는 실험군은 3명 이상인 경우 41.2%, 2명인 경우 35.3%, 1명인 경우 23.5%이었으며, 대조군은 2명인 경우 47.3%, 3명 이상인 경우 31.6%, 1명인 경우 21.1% 순으로 많았으며 두 군이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그 외 출생순위, 거주기간, 아버지의 교육정도, 어머니의 교육정도, 아버지의 종교, 그리고 어머니의 종교에서 모두 두 군이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 2. 실험군 · 대조군 간의 사전검사 점수의 동질성 검정

실험군과 대조군에 대한 동질성을 검정한 결과 자아탄력성의 하위영역인 대인관계, 활력성, 감정통제, 호기심, 낙관성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으며 동질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보고의 아동청소년행동평가 평가점수에서도 위축, 신체증상, 우울과 불안, 사회적 미성숙, 사고문제, 주의집중, 비행, 공격성, 내재화문제, 외현화문제, 그리고 총 문제행동의 모든 영역에서 두 군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자가보고의 청소년행동평가에서 공격성이 실험군 17.5, 대조군 12.1 ( $t=2.42, p=.021$ )으로 두 군이 차이를 보였으나 그 외의 하위영역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아 전체 청소년행동평가는 동질한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 각 변인의 사전값을 각각의 변수에서 공변량으로 처리하는 공변량분석(ANCOVA)을 하여 비교하였다(Table 2). 문제행동평가점수를 T점수로 환산하지 않고 원점수로 계산한 이유는 문제행동정도의 심각성을

Table 1. Homogeneity of Dependent Variables in Pretest

(N=36)

Dependent variables		Experimental group M±SD	Control group M±SD	t	p
Ego resilience	Internal relationship	19.9±4.29	20.2±4.14	-0.15	.878
	Energy or vitality	20.1±4.22	19.8±4.08	0.20	.847
	Emotional control	18.1±3.23	18.8±2.70	-0.74	.465
	Curiosity	19.4±3.73	19.4±4.43	0.03	.975
	Optimism	19.9±5.40	19.4±4.42	0.36	.723
	Total	97.4±16.63	97.5±16.13	-0.01	.991
BPS of K-CBCL	Withdrawn	4.4±3.76	5.0±3.20	-0.56	.580
	Somatic complaints	2.1±1.90	2.0±2.21	0.17	.866
	Anxious/depressed	7.3±3.93	7.1±4.27	0.18	.862
	Social problems	3.9±2.91	4.6±3.01	-0.70	.486
	Thought problems	0.8±1.03	0.5±0.77	0.96	.342
	Attention problems	5.4±3.95	5.8±3.27	-0.36	.723
	Delinquent behavior	1.8±1.79	3.1±2.83	-1.68	.103
	Aggressive behavior	8.4±6.76	11.9±6.99	-1.54	.133
	Internalizing problems	13.2±5.97	13.5±7.71	-0.13	.901
	Externalizing problems	10.1±7.98	15.0±8.12	-1.82	.078
	Total	33.5±15.35	39.4±19.99	-0.98	.332
BPS of K-YSR	Withdrawn	6.0±2.89	6.3±2.10	-0.31	.755
	Somatic complaints	3.7±2.47	2.9±2.77	0.86	.398
	Anxious/depressed	13.5±5.27	11.7±4.68	1.08	.289
	Social problems	5.7±2.95	6.1±2.86	-0.36	.723
	Delinquent behavior	5.5±2.85	4.6±3.89	0.83	.414
	Aggressive behavior	17.5±6.94	12.1±6.48	2.42	.021
	Internalizing problems	22.2±8.30	19.9±8.33	0.84	.405
	Externalizing problems	22.6±9.08	16.6±9.90	2.00	.053
Total		51.8±17.37	43.5±19.68	1.33	.191

보는 임상적 진단의 목적이 아니라 문학치료 중재가 어느 하위영역에서의 효과를 보이는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연구이기 때문이며, 또한 본 연구의 대상자는 70T (98% tile)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임상범위에 해당되는 학생은 존재하지 않았다.

### 3. 문학치료 중재 후 자아탄력성과 부적응행동의 효과 검증

먼저 자아탄력성에서 사전점수를 공변량으로 설정하여 공분산분석(ANCOVA)을 한 결과, 감정통제를 제외하고 대인관계( $F=31.44, p<.001$ ), 활력성( $F=33.40, p<.001$ ), 호기심( $F=33.34, p<.001$ ), 낙관성( $F=35.17, p<.001$ )에서 집단간에 통계적으로 유의( $p<.001$ )하여 문학치료 전후에 실험군에서 총 자아탄력성이 더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 $F=40.08, p<.001$ ).

부모평가의 아동청소년행동평가(K-CBCL)의 부적응행동 점수비교에서 사전점수를 공변량으로 하여 공분산분석(ANCOVA)을 한 결과, 신체적 증상과 사고문제를 제외하고 위축( $F=14.90, p<.001$ ), 우울/불안문제( $F=21.16, p<.001$ ) 사회적 미성숙( $F=29.70, p<.001$ ), 주의집중문제( $F=24.20, p<.001$ ), 비행( $F=14.22, p=.001$ ), 공격성( $F=17.72, p<.001$ ), 내재화문제( $F=25.36, p<.001$ ), 외현화문제( $F=29.72, p<.001$ )에 통계적으로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보여 문학치료 전후에 실험군에서 부모보고의 아동청소년의 총문제행동이 더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F=47.74, p<.001$ ).

자기행동평가척도의 부적응행동의 사전점수를 공변량으로 설정하여 공분산분석(ANCOVA)을 한 결과, 신체적

Table 2. Comparisons of Changes in Variables between Experimental Group and Control Group

(N=36)

Dependent variables	Experimental group		Control group		F <sup>†</sup>	p
	Pretest	Posttest	Pretest	Posttest		
	M±SD	M±SD	M±SD	M±SD		
Ego-resilience						
Internal relationship	19.9±4.29	23.6±3.37	20.2±4.14	19.2±3.21	31.44	<.001
Energy or Vitality	20.1±4.22	24.1±4.08	19.8±4.08	19.2±2.89	33.40	<.001
Emotional control	18.1±3.23	20.5±3.81	18.8±2.70	18.2±2.75	7.01	.013
Curiosity	19.4±3.73	24.4±2.91	19.4±4.42	19.2±3.94	33.34	<.001
Optimism	19.9±5.40	24.5±3.91	19.4±4.42	18.0±3.10	35.17	<.001
Total	97.4±16.63	117.0±14.89	97.5±16.13	93.7±13.35	40.08	<.001
K-CBCL						
Withdrawn	4.4±3.76	2.1±1.48	5.0±3.20	5.7±2.58	14.90	.001
Somatic complaints	2.1±1.90	1.7±1.80	2.0±2.21	1.4±1.39	0.06	.812
Anxious/Depressed	7.3±3.93	4.0±2.98	7.06±4.27	9.0±4.45	21.16	<.001
Social problems	3.9±2.91	2.1±1.78	4.6±3.01	5.2±2.68	29.70	<.001
Thought problems	0.8±1.03	0.3±0.59	0.5±0.77	1.0±2.11	3.25	.085
Attention problems	5.4±3.95	3.0±2.40	5.8±3.27	5.8±2.72	24.20	<.001
Delinquent behavior	1.8±1.79	1.2±1.03	3.1±2.83	4.3±3.20	14.22	.001
Aggressive behavior	8.4±6.76	5.1±5.18	11.9±6.99	13.0±6.29	17.72	<.001
Internalizing problems	13.2±5.97	7.5±4.49	13.5±7.71	15.5±6.71	25.36	<.001
Externalizing problems	10.1±7.98	6.3±5.76	15.0±8.12	17.3±7.08	29.72	<.001
Total	33.5±15.35	19.0±11.02	39.4±19.99	44.9±17.12	47.74	<.001
K-YSR						
Withdrawn	6.00±2.89	3.7±2.64	6.3±2.10	6.5±2.17	18.44	<.001
Somatic complaints	3.65±2.47	8.9±6.42	2.9±2.77	3.0±2.69	3.02	.094
Anxious/Depressed	13.47±5.27	2.9±2.32	11.7±4.68	12.3±4.28	39.74	<.001
Social problems	5.71±2.95	3.3±2.37	6.1±2.86	6.3±2.75	25.59	<.001
Delinquent behavior	5.53±2.85	3.1±1.87	4.6±3.89	4.8±3.88	30.73	<.001
Aggressive behavior	17.47±6.94	10.5±5.66	12.1±6.48	12.8±6.33	51.22	<.001
Internalizing problems	22.24±8.30	14.9±9.25	19.9±8.33	20.7±7.56	38.32	<.001
Externalizing problems	23.00±9.08	13.8±7.21	16.6±9.90	17.3±9.32	74.77	<.001

<sup>†</sup> Analyzed by ANCOVA with the pretest value as covariate.

증상만 제외하고 위축( $F=18.44, p<.001$ ), 우울/불안문제( $F=39.74, p<.001$ ), 사회적 미성숙( $F=25.59, p<.001$ ), 비행( $F=30.73, p<.001$ ), 공격성( $F=51.22, p<.001$ ), 내재화 문제( $F=38.32, p<.001$ ), 외현화 문제( $F=74.77, p<.001$ )에 통계적으로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able 2).

#### 4. 문학치료 중재의 시간경과에 따른 자아탄력성과 자가보 고의 부적응행동의 효과 검증

실험군의 시간경과에 따른 효과검정에서 전체 자아탄력성 점수는 사전 조사값 97.4는 중간 조사값 104.5, 사후 조사값 117.0으로 시간이 경과할수록 평균 점수가 유의하게 높아졌다( $F=19.42, p<.001$ ). 또한 자아탄력성의 하위영역의 대인관계( $F=9.10, p=.001$ ), 활력성( $F=21.55, p<.001$ ), 감정통제( $F=4.78, p=.015$ ), 호기심( $F=17.62, p<.001$ ), 그리고 낙관성( $F=11.33, p<.001$ )에서 시간이 경과할수록 평균 점수가 유의하게 증가되었다. 시간경과에 따른 차이를 보기 위해 Bonferroni 방법에 의한 사후 검정 검사를 한 결과 사전값과 중간값의 차이는 활력성에, 중간값과 사후 값의 차이는 모든 하위영역에서 나타났다. 대인관계, 활력성, 호기심, 낙관성, 총 자아탄력성은 사전 조사와 사후 조사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실험군의 시간경과에 따른 효과검정에서 자기행동평가의

부적응행동 점수는 하위영역에서 위축( $F=12.70, p<.001$ ), 불안/우울( $F=17.81, p<.001$ ), 사회적 미성숙( $F=15.28, p<.001$ ), 비행( $F=16.06, p<.001$ ), 공격성( $F=35.21, p<.001$ ), 내재화 문제( $F=19.75, p<.001$ ), 그리고 외현화 문제( $F=41.15, p<.001$ )는 시간경과에 따라 유의하였으나 신체증상은 시간경과에 따라 유의하지 않았다. 시간경과에 따른 차이를 보기위해 Bonferroni 방법에 의한 사후 검정 검사를 한 결과 사전값과 중간값의 차이는 불안/우울, 비행, 공격성, 외현화문제에서, 중간값과 사후 값 비교와 사전값과 사후 값 비교에서 신체적 증상을 제외하고 모든 하위영역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Table 3).

## 논 의

최근 늘어나는 이혼을 추세나 가정해체 현상에 따른 급증하는 형태적 결손가정이나 기능적 결손가정아동에게 자아성장과 부적응이나 문제행동을 예방하는 임상적용이 가능한 구체적인 간호학적 중재 프로그램인 문학치료 중재를 개발하고, 그들의 자아탄력성과 부적응행동에 미치는 효과를 규명하여 간호학에서 활용될 수 있는 중재 프로그램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결과 문학치료 중재에 참여한 실험군은 참여하지 않은 대조군보다 자아탄력성이 유의하게 높았다. 자아탄력

Table 3. Ego-resilience & BSP of K-YSR of Experimental Group according to Time Process

(N=36)

Variables	Categories	Pretest <sup>a</sup>	Midtest <sup>b</sup>	Posttest <sup>c</sup>	F	p	Post hoc <sup>†</sup>
		M±SD	M±SD	M±SD			
Ego-resilience	Interpersonal relationship	19.9±4.29	21.1±2.77	23.6±3.37	9.10	.001	ac*, bc**
	Energy, vitality	20.1±4.22	21.6±4.02	24.1±4.08	21.55	<.001	ab***, bc**
	Emotional control	18.1±3.23	18.7±3.02	20.5±3.81	4.78	.015	bc*
	Curiosity	19.4±3.73	21.1±2.61	24.4±2.91	17.62	<.001	ac**, bc**
	Optimism	19.9±5.40	22.1±3.70	24.5±3.91	11.33	<.001	ac**, bc**
	Total	97.4±16.63	104.5±13.83	117.0±14.89	19.42	<.001	ac**, bc**
K-YSR	Withdrawn	6.0±2.89	5.6±2.85	3.7±2.64	12.70	<.001	ac***, bc**
	Somatic complaints	3.7±2.47	3.8±2.30	2.9±2.32	4.65	.017	
	Anxious/depressed	13.5±5.27	11.5±5.92	8.8±6.26	17.81	<.001	ab*, ac***, bc*
	Social problem	5.7±2.95	4.8±2.17	3.1±2.11	15.28	<.001	ac**, bc**
	Delinquent	5.5±2.85	4.0±1.71	3.1±1.87	16.06	<.001	ab*, ac**, bc*
	Aggressive	17.5±6.94	14.6±5.57	10.5±5.66	35.21	<.001	ab*, ac***, bc**
	Internalizing	22.2±8.30	20.3±9.03	14.8±9.09	19.75	<.001	ac***, bc**
	Externalizing	23.0±9.08	18.5±6.87	13.7±7.10	41.15	<.001	ab**, ac***, bc**

a= Pretest, b=Midtest, c=Posttest.

† Adjusted by Bonferroni of multiple comparisons.

\*p<.05; \*\*p<.01; \*\*\*p<.001.

성의 하위영역에서 대인관계, 활력성, 호기심, 낙관성, 그리고 총 자아탄력성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통합적 문학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한 아동들의 자아존중감이 향상되었다는 Kim 등(2009)의 연구와, 문학치료는 구조적인 개인적 성장과 대인관계의 상호작용을 막았던 감정을 해결하는 방법을 제공한다는 Gladding과 Gladding (1991)의 주장, 그리고 참여자에게 문학을 통하여 감정이입하여 자신의 문제와 직접 부딪치지 않으면서 자존감을 회복하고 강화하는 방법이라는 Byun (2006)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결과이다. 이는 책읽기뿐만 아니라 다양한 예술 및 표현매체를 이용한 여러 활동을 치료매체로 수용하는 문학치료가 부적절한 감정을 다루어 자신을 이해하고 자신의 지각력 영역을 긍정적 방향으로 변화시켜 자아탄력성을 증진시킨 것으로 사료된다.

문학치료 중재에 참여한 실험군은 참여하지 않은 대조군보다 부모보고의 문제행동증후군 점수가 유의하게 낮았다. 문제행동증후군의 하위영역별로는 위축, 우울과 불안, 사회적 미성숙, 주의집중문제, 비행, 공격성에서 실험군은 대조군보다 유의하게 낮았으며 내재화문제와 외현화문제에 있어서도 유의한 차이를 보이며 낮아졌다. 이 결과는 Kook (2003)의 연구에서 부적응아동을 대상으로 한 문학치료가 학교생활 적응에 도움을 주었다는 치료자와 교사의 주관적 평가와 유사한 결과였다. 이와 같이 글쓰기치료, 이야기치료, 드라마치료 등을 함께 병행하는 문학치료는 아동의 부적응행동 변화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결과 문학치료 중재 후 실험군의 청소년의 자기행동 평가점수는 대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낮았다. 하위영역별로는 위축, 불안, 우울, 사회적 미성숙, 비행, 공격성, 내재화문제, 외현화문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Yun (2008)의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아동을 위한 문학치료에서 산만하고 충동적인 행동뿐만 아니라 주의집중과 사회성 변화에 효과적이었다는 결과와 유사하였다. James와 Gilliland (2001)는 개인이 자신의 삶에 대한 통제감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내적대처기제와 더불어 사회적 지지체계를 함께 활용해야 한다는 심리사회적 전환모형(psychosocial transition model)의 주장처럼 문학치료중재가 그들의 심리사회적 지지를 제공하였다고 보인다. 부모평가와 자기행동평가의 비교에서 신체증상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부모평가의 사고문제 영역에서 효과적이지 않았으나 자기행동평가에서는 사고문제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외현화문제들이 부모에 의해 쉽게 관찰되기 쉽기 때문인지, 내재화 문제에 대한 과소평가 때문인지 확인하기 위한 체계적 연구가 필요하며, 문제행동을 부모평가에만 의존하는 데는 상당한 제한점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Ha 등(1998)의 연구에서 부적응 문제행동에 대한 부모와 아동자신이 서로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인들이 상당히 다르며 구체적인 문제행동에 대한 판단과 규정에도 서로 다르다는 보고와 부적응행동 점수가 부모보다 학생이 모든 영역에 있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난 Park (2002)의 연구결과와 일치한 결과였다. 문제행동을 부모평가에만 의존하는 데는 상당한 제한점이 있음을 알 수 있다. Conger와 Peterson (1984)이 일반적으로 비행청소년들은 자신의 기분이 우울하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행동문제로 나타내므로 행동기전에 우울감정이 내재되어 있다고 지적한 바와 같이 자가보고에서 우울과 불안이 잘 반영되지 않을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우울과 불안의 중재 후 우울이 많이 낮아졌다고 보고되었다. 즉, 문학치료중재는 아동의 외현화문제 뿐만 아니라 내재화문제에 효과가 있다고 사료된다. 부모와의 불안정한 관계나 애착을 보이는 자녀들은 높은 수준의 내재화와 외현화 문제행동을 모두 경험하며(Manassis, Bradley, Goldberg, Hood, & Swinson, 1995), 특히 한 부모 가정아동인 경우 우울과 위축의 내재화 문제행동을 나타내게 될 가능성이 높으며, 또한 학교적응도가 낮을 경우 공격성과 비행의 외현화 문제행동 가능성이 더 높아질 수 있다(Yoon & Park, 2005). 이와 같이 한 부모 가정과 같은 가족구조의 변화가 부모와 자신에 대한 부정적 도식을 가지게 되어 스트레스 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내재화 증상을 더 많이 경험하며, 그 내재화문제를 통해 외현화문제가 나타나는 현상이 경험적으로 입증되는 내용이다. 따라서 문제행동청소년은 실제로 우울을 부인하고 겉으로는 활발하게 지내는 경우가 많아 그들의 정확한 우울과 불안 평가를 위해 심리검사 및 관찰 등으로 재평가되어야 한다(Hyun & Kim, 2004)는 점을 고려할 때 다양한 방법과 여러 평가자들이 각각 평가하여 통합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문학치료에 대한 실험군의 시간경과에 따른 효과는 자아탄력성인 경우 8회기 후의 중간 조사에서는 차이는 활력성에서만 나타났으며 16회기 후에는 자아탄력성의 대인관계, 활력성, 호기심, 낙관성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는 자아탄력성은 짧은 중재기간이 아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적으로 증진될 수 있다는 것(Garmezy, 1993)을 시사



한다. 그러나 자기행동평가에서는 불안과 우울, 비행, 공격성, 외현화문제는 중간 조사에서부터 유의한 차이를 보이기 시작하였으며 신체적 증상을 제외하고는 16주에서 신체적 증상을 제외한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와 같이 문학치료중재로 인한 결손가정아동의 문제행동의 변화는 자아탄력성의 변화보다는 먼저 일어나는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선행연구에서 Kim 등(2009), Yun (2008)의 10회기의 문학치료중재, Kook (2003)의 12회기, Kim과 Hwang (2010)의 25회기와 같이 각기 다른 다양한 중재기간들이 제공되었다. 따라서 자아와 부적응 행동변화를 위한 총체적이고 구조적인 중재방법을 제공하는 문학치료의 효율적인 효과발생 시기와 최소한의 중재기간에 대한 추후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이상의 결과에서 결손가정아동의 정서적 이해와 인지적 통찰로 적응행동으로의 변화를 목표로 하는 16회기의 구조적 문학치료 중재는 참여자와 치료자 사이의 상호작용과 문학에 의한 촉매작용을 통해(Hynes & Hynes-Berry, 1986) 결손가정아동의 부모평가와 자가평가 모두에서 자아탄력성과 부적응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문학치료 중재는 고위험군인 결손가정아동의 자아증진과 부적응행동 예방을 위한 임상분야에서 효과적인 간호중재기법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사료된다.

## 결 론

본 연구는 문학치료 중재가 결손가정아동의 자아탄력성과 부적응행동에 미치는 효과를 규명하고 간호학에서 활용될 수 있는 기초자료와 중재방법을 제공하고자 실시되었으며, 본 연구결과 문학치료 중재가 빈곤 결손가정아동의 자아탄력성 증진과 부적응행동 변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입증되었다. 간호학적 의의는 첫째, 정서, 인지 및 행동의 변화를 이끌도록 구조화된 통합적 문학치료 중재는 날로 증가하고 있는 결손가정아동들 위한 간호중재로 활용될 수 있음을 확인함으로써 정신간호학의 영역확대와 전문화에 기여할 수 있다. 둘째, 문학치료 중재는 내재된 갈등이나 감정을 강요하지 않는 방법에서 문제를 이끌어 낼 수 있어 아동을 위한 간호전략을 개발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셋째, 인간에 대한 이해와 대상자 중심의 치료적 접근에 익숙한 간호사들에게 문학치료 중재는 다른 전문직보다 임상에서의 활용이 더 용이하고 보다 큰 효과를 낼 수 있어 간호학적 중재기법으로 활용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행동의 변화는 그 효과의 지속유지가 더욱 중요하므로 그들의 부적응행동을 줄이고 성공적인 성장발달에 도달할 수 있도록 결손가정아동을 위한 중재 프로그램이 지역이나 학교영역에서 계속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문학치료 중재를 간호영역의 다양한 상황이나 다양한 대상자들에게 제공하여 효과를 비교하는 후속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 REFERENCES

- Achenbach, T. M. (1991). *Manual for the child behavior checklist/4-18 and 1991 profile*. Burlington, VT: Dept. of Psychiatry, University of Vermont.
- Block, J., & Kreman, A. M. (1996). IQ and ego-resiliency: Conceptual and empirical connections and separaten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 349-361.
- Byun, H. S. (2006). *Integrative poetry & bibliotherapy*. Seoul: Hakjisa.
- Byun, H. S., Chae, Y. S., & Kim, C. K. (2008). Biblio/poesie therapie fur angststorungen. *Büchner Und Moderne Literatur*, 30, 327-352.
- Conger, J. J., & Peterson, A. C. (1984). *Adolescent and youth*. New York: Harper & Row Publishers.
- Cornett, C. E., & Cornett, C. F. (1980). *Bibliotherapy: The right book at the right time*. Indiana: Bloomington.
- Garnezy, N. (1993). Vulnerability and resilience. In D. C. Funder, R. D. Parke, C. Tomlinson-Keasey, K. Widaman (eds.), *Studying lives through time*.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Gladding, S. T., & Gladding, C. (1991). The ABCs of bibliotherapy for school counselors. *The School Counselor*, 39(1), 7-13.
- Ha, E. H., Lee, S. J., Oh, G. J., & Hong, G. E. (1998). Parent-adolescent agreement in the assessment of behavior problems of adolescents(Comparison of factor structures of K-CBCL and YSL). *Journal of Child & Adolescent Psychiatry*, 9(1), 3-12.
- Hynes, A. M., & Hynes-Berry, M. (1986). *Bibliotherapy-the interactive process: A handbook*. Boulder, CO: Westview.
- Hyun, M. S., & Kim, M. A. (2004). The effects of the cognitive-behavioral therapy on depression and self efficacy of the problem behavior adolescents in middle school.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18, 458-466.
- James, R. K., & Gilliland, B. E. (2001). *Crisis intervention strategies (4th ed.)*. Pacific Grove, CA: Brooks/Cole.
- Kim, C. K., Chae, Y. S., & Byun, H. S. (2009). The effects of



- integrative literary therapy program on the anxiety reduction and self-esteem improvement of children. *Journal of Emotional & Behavioral Disorders*, 25(2), 57-76.
- Kim, G. S., & Kim, Y. G. (2002). The effects of self-growth group counseling on the adaptation of broken-home students to school life adjustment and their problematic behaviors. *The Journal of Humanities*, 7, 1-29.
- Kim, J. A., & Hwang, H. J. (2010). A study about effect of literary therapeutic program through the case of children. *Journal of Literary Therapy*, 14, 95-139.
- Kim, T. K. (1984). *The effect of structured bibliotherapy on psychiatric inpatients' behavior and their prognosis*. Unpublished master'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 Kook, E. S. (2003). *The case study of literary therapy for maladjusted children*. Unpublished master's thesis, Woosuk University, Jeonbuk.
- Korean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 (KOSIS). (2005). *DT-1EU338*. Retrieved May 28, 2011 from <http://kosis.kr/winsearch/totalSearch.jsp>
- Korean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 (KOSIS). (2010). *DT-1B8000F*. Retrieved May 28, 2011 from <http://kosis.kr/winsearch/totalSearch.jsp>
- Kramer, P. A., & Smith, G. C. (1998). Easing the pain of divorce through children's literature. *Early Childhood Education Journal*, 26(2), 89-94.
- Lee, E. G. (2004). Emotional & behavioral problems in children from broken family. *Ewha Education a Collection of Treatises*, 14, 79-93.
- Manassis, K., Bradley, S., Goldberg, S., Hood, J., & Swinson, L. (1995). Behavioural inhibition, attachment and anxiety in children of mothers with anxiety disorders. *Canadian Journal of Psychiatry*, 40, 87-92.
- Moon, M. Y. (2000). *The effects of children's perception of parental rising attitude on children's behavior of maladjustment*.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 Oh, K. J., Ha, E. H., Lee, H. R., & Hong, G. E. (1997). *K-YSR, Korean-youth self report*. Seoul: Chungang Aptitude Publishing.
- Park, E. H. (1996). *The relationships between ego-resiliency, IQ and academic achievement*.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Daejeon.
- Park, J. J. (2002). *Comparison of the results of the K-CBCL and the K-YSR on emotional and behavioral problems of adolescents in Jeju*.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osun University, Gwangju.
- Park, W. J. (2009). The influence of ego-resilience on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s, learning styles, and academic adjustment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18, 240-250.
- Richman, N., Stevenson, J., & Graham, P. J. (1982). *Pre-school to school: A behavioural study*. London: Academy Press.
- Yalom, I. D. (1985). *The theory and practice of group psychotherapy*. New York: Basic Books.
- Yoo, S. G., Hong, S. H., & Choi, B. Y. (2004). Mediating effects of ego-resilience, attachment, and existential spirituality between family risks and adaptation. *Korean Journal of Education Psychology*, 18, 393-408.
- Yoon, H. M., & Park, B. K. (2005). Factors associated with adolescents' problem behaviors.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Studies*, 28, 133-164.
- Yun, M. Y. (2008). A study on literary therapy of children's ADHD. *Journal of Literary Therapy*, 9, 179-226.